

국내 유학생을 위한 학업 생활 적응 진단 도구 개발 연구*



박진욱

주저자 대구가톨릭대
<zoopjw@cu.ac.kr>



박은영

공동저자 대구가톨릭대
<eyp0202@c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유학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을 다각도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학생들의 적응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살펴 학업 생활 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국내 5개 대학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업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진단하였다. 또한 학업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학업 생활 적응도, 외국인 유학생, 학업 생활, 대학 생활, 문화 스트레스, 학업 한국어 능력

* 본 논문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I. 서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도에 대한 연구로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 개발과 적용을 통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수차례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도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 내 유학생 유치는 지난 50여 년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세계화 정책들과 월드컵 유치 등으로 인해 국가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1980년도 1,015명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이래 연평균 48.3%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해 오고 있다.¹⁾ 이와 같은 유학생의 증가는 한국 대학 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세계적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단기간에 증가한 유학생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유학생 증가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전문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4년제 대학의 3~4배에 웃도는 평균 1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1) <표 1> 유학생 비율(교육통계, 201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학(학위+연수)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대학(학위)	22,624	32,056	40,585	50,591	60,000	63,653	60,589	56,715	53,636

2) <표 2>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교육통계, 2015)

중도탈락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50% 이상	3.4%	0.4%
40% 이상	1%	0%
30% 이상	4.3%	0.4%
20% 이상	2.5%	1.3%
10% 이상	6.0%	6.4%
합계	17.2%	8.5%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학업 및 유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도 함께 실시되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이후에는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로 확대되어 왔다.

김정숙(2000), 이해영(2001)은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의 원인을 언어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는데, 대학 입학 전에 학습자들이 배운 한국어는 일반 목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적인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문 맥락에서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재는 이들의 학업 적응 부재로 이어지며 결국 학업 중도 포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적 접근은 이후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다른 학문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유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을 문화 부적응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김지언·어성연(2015), 나임순(2006) 등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부적응이 학업 부적응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남조(2010), 백지숙(2011) 등의 연구로 이어지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및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대학에서의 적응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며, 이들의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처방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실시되었기에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들 유학생의 적응 실태를 파악할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유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유학생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은 어떠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학업 생활 적응의 하위 요소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에 대한 요소는 하나의 표준화된 검사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업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설정에서부터 실제 적용, 검증과 논의 과정까지만을 다룰 것이다. 추후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를 통해 학업 생활 적응도에 대한 일반적이며 범용적인 개념과 요소를 설정할 것이며, 표준화

검사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 요소

대학생의 적응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외 연구는 Baker & Siryk(1984)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보면 대학생의 적응 능력을 ‘학업 활동에 몰두하는 정도’, ‘학업적 노력의 성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활동 수준’, ‘개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대학에 대한 소속감’ 등 다양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³⁾ 국내에서 실시된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학 생활 적응, ‘문화 적응’, ‘학업 적응’ 등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유학생들의 적응과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는 크게 학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에 초점을 둔 경우와 대학 생활에서의 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경향의 연구 모두 유학생의 한국어능력과 문화 능력을 학업 생활의 유학생의 적응 요소로 다루어 왔으나 초점이 다른 만큼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대안의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표 3〉 외국인 유학생 적응 관련 연구 경향

언어능력 초점 연구	⇔	문화적응 초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한국어능력과 학업 성취의 상관관계 초점 •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서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초점 •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상담을 통해 대안 마련

언어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한국어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이나 입학 성적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학업 적응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적응과 관련한 해결책도 유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상응하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학문적 상황에서의 한국어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 생활(대학생활을 포함)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과 문화적응을 학업적응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3) 이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신입생에게 실시한 결과는 4년 동안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낮춰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상담 제공 등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두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는데, 정남조(2010)에서는 학업 적응 요인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및 한국어능력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채식(2012)은 대학 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언어적 능력을 설정하는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에서부터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 적응 능력을 유학생의 적응에 필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도 유학생의 대학 생활에서의 적응을 학업적인 측면 혹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기보다 학업 성취와 생활 적응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학업 생활 적응'이라는 용어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들에서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에는 한국어능력, 문화적응력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본고에서도 대학생의 적응 행동에 유용한 요인을 확인하여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학업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학업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다루어져야 유학생들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변화 가능한 모습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문화에 대한 충격과 학업적 고충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건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요인을 포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적응 수준을 다루는 연구에서 언급되는 심리적 특성 중 하나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Block 1982). 즉,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자아를 통제하는 상태로 기능하면서 역동적인 적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본 자아탄력성은 유학생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학생이라면 한국어 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환경적인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학업적응도를 높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유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과 함께 심리적 특성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자존감(self-esteem)이 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자존감을 갖는 첫 단추이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보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 결정력이 생기고, 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적, 리더십, 위기극복능력, 대인관계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학업 수행의 도구로서 한국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이 가능한 도구를 예비 개발하여 범주에 포함시키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생활 적응에 성공하여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행의 발판이 되는 한국어와 더불어 대학 문화에 대한 적응, 대학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개인적 어려움 해소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도 예비 검사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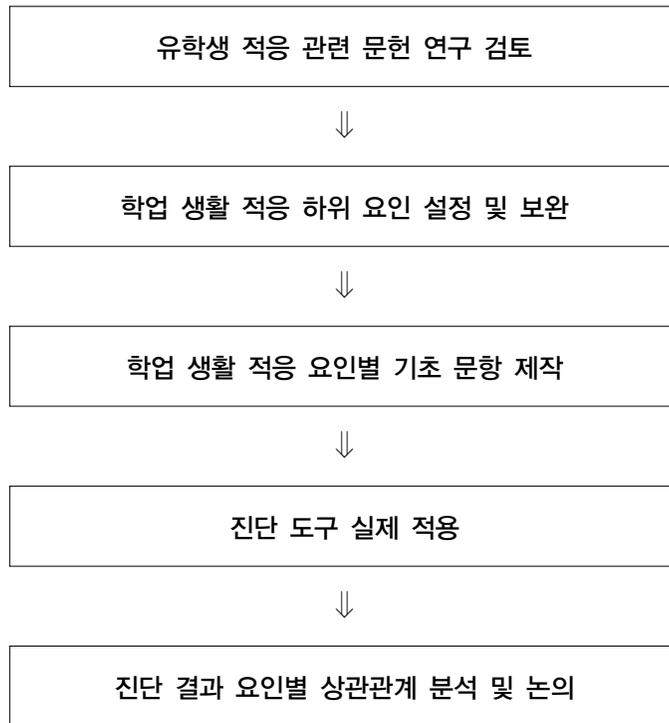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학업 생활 적응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업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련된 요인을 수집하고, 수집된 요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요인 설정과 질문지 작성에 있어서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1인과 교육 정책 전문가 1인, 측정심리 전문가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인별 기초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1. 도구 개발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자 한다.

4) 기존 연구들 중 한국어 수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자신의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나,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수준은 어떠한가와 같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학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한국어 수준에 대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표 4〉 학업 생활 적응 진단 도구 연구 절차



2. 자료 수집

다양한 지역의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경기 및 충남권과 경북권역 5개 대학에서 학부 한국어 수업을 듣는 유학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수거하지 못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총 18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조사 대상

1) 유학생

조사 대상	여학생(73.5%) 남학생(26.5%)
학년 분포	1학년(28.1%) 2학년(30.3%) 3학년(27%) 4학년(14.6%)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2급(3.8%) 3급(14.1%) 4급(13%) 5급(11.9%) 6급(13.5%)
국적	중국(60.5%) 외 23개국

2) 전문가

연구에 참여한 2인 외 3인의 전문가로부터 학업 생활 적응에 대한 요인 설정과 기초 문항 제작에 있어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	전공 분야	관련 분야 경력
가	한국어교육학 박사	15년
나	교육학 박사(교육 정책)	12년
다	심리학 박사(측정 심리)	11년

4. 학업 생활 적응 관련 요인 설정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학교 평균성적, 교양과목 성적, 전공과목 성적, 유학 전 학업 성적, 학업 생활 적응도, 문화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존감, 학업 한국어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거나 개발된 척도는 문화 스트레스, 학업 생활 적응도, 학업 한국어 등이고 자아탄력성과 자존감은 기존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1) 학업생활적응도

유학생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와 학과 등에 대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대학교, 전공, 학과의 분위기, 학과의 교수님과 같은 과 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5점 평정척도에 평정하도록 한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5~25점이고($M=19.53$, $SD=3.23$),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생활 적응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 생활 적응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25였다.

2) 문화스트레스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중 문항에 대한 타당도 높았던 박은진(2007)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5개 문항과 남순현(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학생의 고충을 근거로 개발된 5문항을 추가해서 총 10문항을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기초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점수범위는 10~50점이고($M=29.49$, $SD=4.78$),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는 .621이었다.

3) 학업 한국어

학업 한국어 척도는 대학에서의 학업적 수행에 필요한 한국어구사 능력을 구체적인 기술 또는 능력으로 표현한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⁵⁾, 5점 리커트식척도로 제작하였다. 점수범위는 32~160점(M=99.30, SD=18.91)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한국어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학업 한국어의 내적 합치도는 .958이었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은석과 김성희(2012)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긍정적 사고(10문항), 정서조절(10문항), 목표지향성(6문항), 의사소통방식(10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점수범위는 32~160점이고(M=100.93, SD=11.64),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은석과 김성희(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5이었다.

5) 자존감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이영호가 번안한(1993) 문항으로 사용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식 척도이고, 점수범위는 10~50점(M=28.20, SD=4.05)이다. 이영호(1993)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95이었다.

위와 같은 요인 설정을 통해 개발된 진단 도구는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유학생 학업 생활 적응도 진단 도구 문항 구성

	진단 문항 영역	문항 수
학업 생활 적응 진단 문항 구성	인구학적 영역	5
	학업 성취도 영역	4
	학업 생활 적응 영역	5
	문화 적응 스트레스 영역	10
	자아탄력성 영역	32
	자존감 영역	10
	학업 한국어능력 영역	32

5) 학문 목적 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업 한국어능력이라는 척도 안에는 강의듣기, 보고서 쓰기, 학업 보조적 의사소통, 대학 생활 유지 의사소통 등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IV. 학업 적응 요인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한국어능력시험	1									
2.평균성적	-.006	1								
3.교양성적	.026	.550**	1							
4.전공성적	.075	.704**	.449**	1						
5.유학전성적	.128	.404**	.216**	.446**	1					
6.학업생활적응도	.091	.227**	.231**	.289**	.160*	1				
7.문화스트레스	-.071	-.018	-.063	.001	-.001	-.110	1			
8.자아탄력성	.057	.241**	.080	.113	.158	.292**	-.251*	1		
9.자존감	.215**	.087	.132	.144	.190*	.324**	-.134	.597**	1	
10.학업한국어	.284**	.094	.169*	.246**	.131	.110	.005	.144	.255**	1

* : $p < .05$, ** : $p < .01$

N=185

주요 변인간의 상관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업 한국어와의 정적 상관이 유의미했다($r=.284$, $p < .01$).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 숙달도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본래 목적이 일반 목적은 한국어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 단위의 표준화 시험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입학 자격 혹은 졸업 자격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학업 한국어라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강의듣기나 보고서 쓰기 등)을 중심으로 개발한 자가 평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보면 한국어능력시험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업 한국어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가 높을수록 실제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학업 한국어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인 시험과의 관계를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학업 한국어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 한국어능력시험은 다른 대부분의 요소들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성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급수만으로는 학업 수행의 적응 혹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학생의 현 소속 학교에서의 평균성적은 교양성적($r=.550, p < .01$), 전공성적($r=.704, p < .01$), 유학전성적($r=.404, p < .01$), 학업생활적응도($r=.227, p < .01$), 및 자아탄력성($r=.24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지적되었다. 교양성적의 경우 전공성적($r=.449, p < .01$), 유학전성적($r=.216, p < .01$), 학업생활적응도($r=.231, p < .01$), 및 학업 한국어($r=.169, p <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전공성적의 경우 유학전성적($r=.446, p < .01$), 학업생활적응도($r=.289, p < .01$) 및 학업 한국어($r=.246,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유학전성적은 학업생활적응도($r=.289, p < .01$), 자존감($r=.190, p < .05$)과 정적 상관이 유의미했다. 이는 본국에서의 학업 성취도라는 높은 학습자는 자존감이 높고, 유학전성적이 학업생활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학전성적은 유학 중 평균성적, 교양 및 전공 성적은 상호 간의 정적 상관이 유의미했다. 이는 본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유학해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단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게 되면 유학 전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것이 성공적인 한국 유학 생활을 담보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학 전의 학업 우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을 담보로 하는지, 예를 들면 유학 전 학업 상태가 우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유학을 선택을 한 것인지, 학업에 의지와 동기가 높은 것으로 인한 현상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유학 전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인 유학생으로 유학에 대한 동기 및 자존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업생활적응도는 평균성적, 교양과 전공 성적 및 유학전성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지적되었다. 이는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의 학업 적응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탄력성($r=.292, p < .01$), 자존감($r=.324, p < .01$)과의 정적 상관도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학업생활적응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학생에게 한국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외 자아탄력성과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개입을 통해 학업생활적응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유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대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의 부적 상관만 유의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r=-.251, p < .05$). 또한 다른 변인과의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스트레스가 낮다는 의미이다. 유학생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려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자존감의 경우 학업생활적응도($r=.324, p < .01$), 자아탄력성($r=.597, p < .01$), 학업 한국어 $r=.255,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지적되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학업적 성과는 대학생의 자존감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 한국어가 높다는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평균성적, 학업생활적응도와는 정적 상관, 문화적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미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대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하위 요인 설정에서 요인별 문항 개발,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본 검사지 개발과 종적 연구를 통해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적응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방안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예비 검사지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외 해석 가능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대학에서 학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아, 유학생들의 학업 맥락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진단평가에 특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업 한국어 척도를 통해 볼 때, 교양 교과목에서의 한국어 사용과는 다른 전공 교과목에서의 한국어 사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에 따라 전공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한국어교육의 방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특화된 척도 개발과 척도 내 세부 항목들 간의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유학전성적은 유학생의 유학 동기 면에서의 자발성과 그에 따른 자존감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유학전성적과 관련하여 학업 동기에 대한 문항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스트레스의 경우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 유학 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외에 큰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은 자존감과 달리 과거보다는

현 상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문제적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능동성과 관련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학업 성적, 학업적응 만족도,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업 적응도 검사지 개발의 예비 단계의 연구이므로 위의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표본 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범주 내 문항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겠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추가한 학업 생활 적응도에 대한 하위 요인의 타당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각 요인별로 개발된 기초 문항들 가운데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재편한 후 범주화 하여 연역적으로 설정한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 강승혜. 2002. 재미 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13(1), 1-24.
- 권재환 · 김정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 32-58.
- 김선남. 2007.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46.
- 김정숙. 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1(2), 1-19.
- 김지연, 어성연. 2015.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과 학업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델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3(3), 93-116.
- 김현진. 2009. 재미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 문화 교육 병행 프로그램 설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39, 53-77.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백지숙. 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이은석, 김성희. 2012. 대학생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6), 3077-3094쪽.
- 이채식. 2012.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12), 121-140.
- 이해영. 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18, 279-301.
- 이해영. 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15(1), 137-164.
- 정남조. 2010.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1), 281-29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ziano, E. 1996. Ecological Metaphors as Scientific Boundary Work: Innovation and Authority in Interwar Sociology and Bi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4), 874-907.
- Dudley-Evan & St John.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투고일: 2017. 1.26. ● 심사일: 2017. 1.31. ● 게재확정일: 2017. 2.13.

Developing a diagnose tool(inventory) for foreign student's academic life satisfaction

Park Jinwook · Park Euny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tool to diagnose the degree of foreign student's academic life satisfaction. Since 2000, foreign students in Korea are increasing consistently, which indicates the need of a multidimensional tool that can evaluate their comprehensive academic aspect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es on foreign student's adjustment, subscales and items were developed,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tested. Foreign students at 5 Universities in Korea were evaluated through this tool. Also,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various variables influential to academic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Key words> Academic satisfaction, Foreign student, Academic life, University life, Cultural stress, Korean competence for academic